



우주에서 가장 신나는 페미니즘 강좌

“대상화?” “성적 자기결정권?” “섹슈얼리티?”
도대체 모르겠어... 페미니즘 너무 어려워~

“난 웬만한 여성학 수업 다 들었는데...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배우고 싶어.
학교 수업으로는 만족이 안돼.”

하지만 어디서 배우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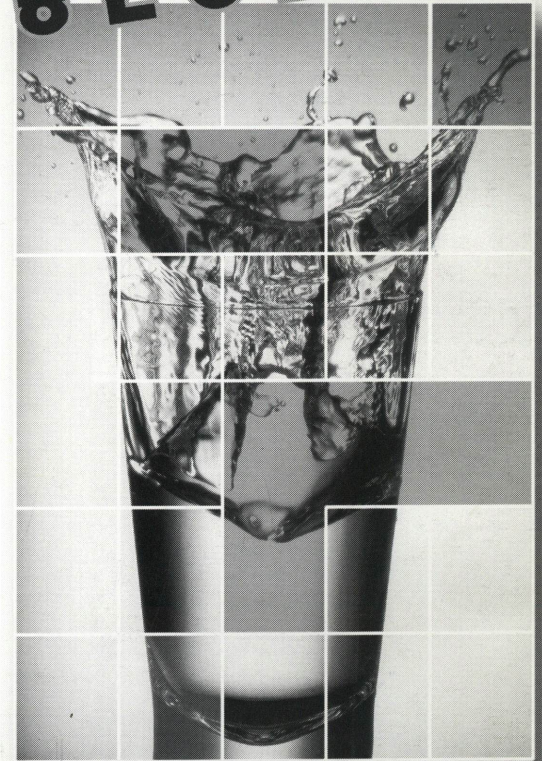
다양하게 존재하는 여성학에 대한 관심들.
알 듯 모를 듯 손에 잡히지 않는 이야기들.
그 고민을 풀어줄 신나는 페미니즘 강좌가 마련됩니다.
내게 필요한 강좌만 골라서 쏙 쏙 쏙!
알찬 자기 업그레이드를 위한 자리가 여기 펼쳐집니다.

기대하시라~



나를 움직이는 에너지,

기본중은충돌!



제 14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고 있는

이김경진 · 김이정민 과 함께하는 사람들

총여학생회장 후보



총여학생회장 후보

이김경진 (인문 3)

- 여성주의 문화실험 모임 “움” 활동
- 문대 여성주의 모임 “모반” 활동
- 메이데이 “女/聲” 기획단 활동
- 제4회 여성제 “풍류여인” 기획단장

부총여학생회장 후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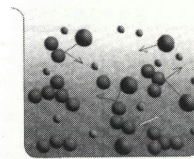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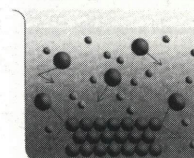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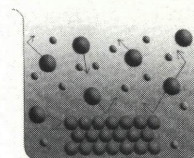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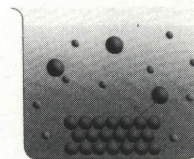
김이정민 (사과 3)

- 여성자치 언론 “두입술” 활동
- 두입술 5호 『여학우 길찾기』 기획
- 고정희 추모제 “開口우먼” 기획단
- 《여성신문》 대학통신원 활동



부총여학생회장 후보

나의 머리 속에,
너의 가슴속에 일렁이던 그 수많은 입자들.
더이상 움직이기를 포기한 채 화석처럼
굳어져 버리지는 않았는지.
어느새 두터운 침전물의 답을
쌓고 있지는 않은지.
이제 부딪혀 서로의 답을,
그 오랜 구속을 깨뜨리자.
그 안에서 터지는 충만한 에너지가
새로이 나를 움직일테니.



나를 움직이는 에너지, **기분 좋은 충동!**

나를 움직이는 에너지,

소소한 일상의 바로 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총여학생회!
- 충돌을 만드는 소통, 나눠 갖는 여성주의,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!

가끔씩 열리는 행사들.

그 행사들이 끝난 이후에도 내 고민들이 여기 저기 많은 곳에, 매 순간 순간 생겨난다.

행사가 끝난 뒤 벽에 붙어 있는 포스터 몇 장을 보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아쉬움들.

비슷한 고민을 가진 것 같은데,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, 만났던 것 같은데...

내가 맞닥뜨리는 많은 순간들에 대한 비슷한 갈등,

통쾌한 경험들이 마주칠 때 생겨나는 에너지,

채널이 맞아떨어지는 그 즐거운 느낌을 언제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!?

지속적이고 편질나게 나누고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보자!

과방에서, 화장실에서, 여휴에서, 도서관에서, 인터넷에서, 그리고 때로는

백양로에서 새로운 기분으로 숨쉬는 그 기분을 같이 만들어보자고! 어때?

기분 좋은 충돌!

너와 나의 기분 좋은 충돌!

부딪치기 전 부딪친 후 기분 좋은 충돌로 마무리 짓는 방법은?

「담배 냄새 너무 싫다.

잠잘 땐 좀 조용히 해주세요.

여휴에서 담배 좀 작작 피웠으면 좋겠다」 기타 등등.

어찌 보면 절충안을 찾기에 힘든 일인지도 모른다.

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여휴에선 더더욱.

그러나..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

내가 행동할 때 그 선택의 폭을 넓게 할 수도 있는 일!

이젠 각자 말하고 서로 얘기하고 함께 만들어가자!

Each Action, Happy Together!

이미 예정되어 있던, 부딪칠 수 밖에 없는 충돌이라면

기분은 좋게, 100만 볼트 충격

